

美國에 있어서의 退溪學 연구의 전망**

에드워드 와그너 (Edward.W. Wagner)*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 지금부터 만2개월 전인 10월 10일 미국 보스턴시 한 교외인 캠브리지시에서는 하버드대학의 주관으로 退溪學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자유중국, 瑞西에서 退溪學 또는 한국학을 전공한 많은 학자들이 참석하였고 미국에서도 하버드대학의 杜維明 박사와 위치타대학의 미카엘 칼튼박사와 동양철학 분야에 세계적 권위자이신 陳英捷박사 그리고 본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어느 국제회의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다국적 모임이었습니다.

이 회의 개최식에서 제가 드린 인사말씀 중에 다음과 같이 연설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어로 말씀을 드려서 쉬웠지만 여기 한국에서의 발표로는 한국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한국말로 읊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역 냄새가 농후하게 풍길 테니까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버드대학교에서 위대한 한국 철학자이신 퇴계 李滉先生의 사상을 테마로 해서 국제 학술회의를 열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알고 또 여러 의미로 뜻깊은 일입니다. 한편 이 회의는 아직 역사가 2년 밖에 안된 우리 韓國學研究所 주최하에 개최된 모임으로, 우리에게는 한국에서 역사도 길고 한국학의 가장 중요

* 하버드대학 교수

** 이 글은 1983년 퇴계학 국제 학술강연회에서 발표한 것임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40호(1983) 게재논문

한 분야의 하나로 잘 인식되어 왔으며 또 현대의 서양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퇴계선생의 사상, 즉 退溪學과 관계를 맺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하버드대에서의 한국학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退溪學 국제학술회의는 지난 30년 동안 여기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려는 운동의 고비가 되는 동시에 그 연구가 점점 성장되어 온 과정의 절정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때 退溪學 국제 학술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서양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退溪學 학술회의가 다른 데가 아닌 바로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리게 된 것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하버드대학교가 서양에서 한국학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곳이고 둘째는 이번 회의에서 발표하시는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 14명 중에 세 분은 우리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요건 또 하나는 퇴계선생 같은 존엄하신 학자의 사상에 관한 회의가 서양에서 열리게 된다면 하버드대학교와 같은 존엄한 교육기관에서 마땅히 개최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컨대 하버드대학교가 창립된 해는 퇴계선생이 돌아가신 1570년부터 one man's lifetime(한 사람의 수명)이 되는 1636년(병자호란 바로 그 해)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우리 대학교가 퇴계선생의 제자나 손주제자 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韓國의 文化 특히 學文에 대한 지식은 사실 한심한 수준입니다. 최근 많이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한국의 창조적이고 독특한 문화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중국이나 일본의 일개 지역적인 문화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적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학술회의가 미국에서, 그것도 수많은 미국의 지도자를 배출했고 전통있는 학문의 센터로 이름난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는 적지 않은懷疑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退溪學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결과는 전연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를 방청했거나 또는 소식을 들은 많은 학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성공을 축하해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가지고 退溪學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격려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대학의 東洋學研究所 소장으로 계신 필립·쿤 박사는 이번 회의가 끝난 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가 퇴계연구를 모티브로 해서 東洋과 西歐의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교의 리처드·헌트 총장대리는 저에게 다음과 같은 숨은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강사로 오신 뚜 웨이밍 박사에 관계되는 이야기인지라 본인의 양해없이 말씀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2, 3년 전에 뚜 웨이밍 박사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 東洋哲學研究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대학 당국자들은 이 분야에서 이름난 석학인 뚜 웨이밍 박사를 하버드대학교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교섭을 벌였습니다. 이때 뚜 웨이밍박사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란 다름아닌 性理學 연구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조건은 받아들여지고 杜박사는 하버드대학교로 오셨고 하버드대학 교수로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헌트 총장대리는 이런 숨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 문리대 학장과 대화한 내용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退溪學이 性理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하버드대학교의 정식 연구테마로 추진해야 할 것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한번의 회의로 이 이상의 성과를 어떻게 기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과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뉴욕·워싱턴·하와이의 3개 지역 대학들에서 退溪學을 연구하는 기관이 정식으로 창설되었고 머지 않아 로스앤젤리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대학에서도 退溪學研究所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성과를 올리는 계기가 됐던 지난번의 학술회의에서는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편의 논문은 그 내용의 독창성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중 두 편의 발표자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아까 에피소드로 소개한 뚜 웨이밍 박사와 일본 쓰꾸바대학의 다카하시·스스무 박사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어서 退溪學 연구의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즉 제가 미국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강연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退溪先生의 學績에 젖은 사회에서 살아 오신 한국분들이십니다. 이런 자리에 미국과 일본의 두 외국 학자가 여러분의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여기 와 계십니다. 저 역시 미국인으로서 전공이 退溪學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평생사업으로 한국을 연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영어만 쓰고 그 생활에 젖어서 살아온 사람에게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생긴 모습이 다르고 먹는 음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 인간을 지탱시켜 주는 근본철학은 東西洋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똑같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풍토 속에서 退溪의 철학사상이 배양되었습니다. 그러나 退溪學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고 언어와 풍습과 국경을 초월해

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지침이 될 인류 공통의 가치체계(value system)로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退溪사상은 基督教 정신이나 佛敎사상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의 것만이 아닌 인류공동의 정신적 유산으로 빛을 더해 갈 것입니다.

(퇴계학연구원 譯)